

## 싱가포르 2023: 집권당의 부패혐의와 경제성장 둔화 속에 심화되는 불평등\*

김주영\*\*

### 국문초록

2023년 싱가포르는 집권당의 부패혐의로 어지러운 상황에서 경제성장도 둔화되면서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4세대 리더십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2022년에 비하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와 함께 임대료 상승,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킨 한 해기도 했다. 부동산 스캔들로 대표될 수 있는 집권당의 부패혐의가 서민의 생활고와 맞물리면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예상했지만 놀랍기도 한 높은 득표율로 마무리 되었고, 정치권은 다가오는 총선 준비에 분주했다. 리셴룽 총리는 2024년 11월에 총리직을 로렌스 워 부총리에게 이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총선을 향한 여정을 본격화하였다. 집권당은 2023년 불거진 부패혐의를 봉합하고 싱가포르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골몰하고, 야당은 연대를 통해 유의미한 세력화를 도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균형외교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격상하고, 미국과는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했다. 동남아 주변국과의 협력 외교와 유럽·중동지역과의 디지털 협력이 이어졌으며, 한국 기업과는 녹색경제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업했다.

주제어: 싱가포르, 부패, 대통령 선거, 인민행동당(PAP), 증세, 불평등, 총리 승계, 총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2544).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wish316@jbnu.ac.kr

## I. 싱가포르의 2023년을 돌아보며

2023년 싱가포르는 기존의 공고한 체제에 도전하는 난제들로 인해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집권당의 부패혐의는 부동산 스캔들로 대표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엘리트 정치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사이의 거리감을 조성했다. 불평등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이슈가 아니지만, 2022년부터 고공행진 중인 물가와 2023년에 들어서면서 인상된 세금과 공공요금, 둔화된 경제성장 등의 요인이 결합되면서 생활의 어려움과 구조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집권당은 청렴이라는 기존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비판에 권위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권당에 대한 비판이 거셌지만 오랜만에 국민 투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여전히 여론이 집권당의 편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지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 역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는 집권당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야권은 2023년 생활비 문제와 불평등 이슈에 대응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야권 내에서도 사적인 스캔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여야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박한 총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야권의 연대가 모색되었고 리셴룽 총리가 총리 승계 시점을 발표하는 등 총선이 임박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미중 균형외교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싱가포르는 2022년에 이어 미중 사이의 줄다리기와 줄 세우기를 비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하고 미국과 기후위기, 과학기술, 우주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 거세지는 미중 경쟁

속에서 4세대 리더십이 어떠한 외교 역량을 보여줄지는 향후의 과제로 남았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집권당은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다.

## II. 정치

### 1. 집권당의 도덕적 위기에 내포된 잠재적 모순의 대두

2023년은 청렴함을 강조했던 싱가포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한 해였다. 그 시작은 지난 5월 불거진 K 산무감(K Shanmugam) 내무·법무부 장관과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외무부 장관의 부동산 스캔들이었다. 야당인 개혁당(Reform Party)의 대표 케네스 제야레트남(Kenneth Jeyaretnam)이 국유지인 리다아웃로드(Ridout Road)의 방갈로를 임대한 두 장관이 이해관계의 충돌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대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국유지 관리부처인 싱가포르 토지청(Singapore Land Authority)에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토지청은 법무부 산하의 법정위원회로 산무감 장관이 관할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부패관행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에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은 6월 말 44쪽 분량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두 장관이 국유지 임대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이득이나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사건을 정리했다(Prime Minister Office 2023a). 의혹 제기 이후 한 달여 만에 총리가

나서서 사건 종료를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7월에는 S 이스와란(S Iswaran) 교통부 장관이 부패관행조사국의 조사 일환으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총리가 이스와란 장관에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휴가를 지시하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는 각종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오히려 부패관행조사국의 조사가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면서 “우리는 솔직하고 투명할 것이며 인민행동당과 정부에 잠재적으로 당혹스럽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해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으로 청렴함을 재차 강조했다(Ang 2023a). 하지만 부패관행조사국이 첫 번째 공식 발표에서 이스와란 장관이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곧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명하지 않은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는 없었다(Ashley 2023).

이어서 한 때 잠재적인 총리 후보로 여겨질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 국회의장 탄추안진(Tan Chuan-Jin)이 의장직과 의원 자리를 모두 내려놓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대통령의 의회 연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당(Workers' Party) 의원이 20분 동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는 도중, 탄추안진 국회의장의 마이크에서 “빌어먹을 포퓰리스트(Fucking Populist)”라고 중얼거린 음성이 유출된 적이 있다. 그가 같은 인민행동당 의원인 첵리후이(Cheng Li Hui)와 오랜 외도 관계였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집권당의 작동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총리실에 제출한 사직서에서 해당 의원과 대중에게 사과를 했지만 분명한 실수였다고 사퇴의 이유를 설명했고, 총리는 “인민행동당이 수년 동안 유지해온 높은 예의범절과 개인행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CNA 2023a).

분석가들은 연이은 사건이 부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이 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온 인민행동당이 마주한 충격적인 위기라고 평가했다(Mokhtar et al. 2023). 일련의 사건은 정치권에 내재된 잠재적 모순을 상기시키고 오랜 시간 구축해온 ‘인민행동당의 싱가포르’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위기이다. 리다웃로드의 사건에서 두 장관이 무혐의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국유재산인 방갈로를 수리하기 위해 오히려 막대한 사비를 들였다는 것이었다. 산무감 장관은 400,000SGD(한화 약 4억 원),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200,000SGD(한화 약 2억 원)를 들여 방갈로를 수리했다. 임대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보기에 정치인들이 큰돈을 들여 집을 수리했다는 사실은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부를 축적하게 한 특정 구조를 비판적으로 상기하게 만든다(Quek 2023b). 부패 척결은 리콴유(Lee Kuan Yew)가 구상한 싱가포르의 핵심 원칙이었고, 능력 있는 고위 간부에게 지불되는 고액 연봉은 깨끗한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작동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런 싱가포르에서 장관의 부패혐의는 고액 연봉과 그들의 특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산무감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임대아파트부터 고급 방갈로에 거주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조했다(Davina 2023a). 싱가포르에서 여전히 능력주의가 주요한 가치이며, 능력에 따라 성공한 정치인의 대중을 향한 봉사가 특정 사건 때문에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산무감 장관은 리다웃로드 사건이 불평등을 상기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여전히 능력이 있으면 가난한 아이도 자신처럼 성공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담론을 재생산하는 데 골몰했다. 성공한 자신의 ‘봉사’가 ‘평등한 싱가포르’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서사는 집권당이 위기로 인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실

히 보여주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던 개혁당 대표가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POFMA: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POFMA가 야권 규제와 여론 통제를 위한 정치적 장치라는 비판이 다시 일었다. POFMA는 2019년에 통과된 이후 100회도 넘게 발동되었으며, 이 중 1/3이 야당과 집권당을 비판하는 활동가들에게 제기되었다(Berthelsen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는 여러 문제를 반성하며 인민행동당이 투명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안을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둘러싼 비판을 마주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거짓으로 치부해 진실을 독점하려는 오랜 전략이 지배 엘리트들 향한 대중의 회의적인 관점과 맞물리면서 역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Ewe 2023). 비판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집권당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부 비판을 범죄화하는 법을 우려하는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는 특정 언론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 리다아웃로드 사건을 게시한 소셜미디어 제재,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비판한 총리의 동생 리셴양(Lee Hsien Yang)에게 내려진 시정명령 등을 2023년에 계속된 POFMA 적용 사례로 제시하면서 싱가포르를 ‘억압된’ 국가로 평가했다(CIVICUS 2023). 그러는 사이 의회에서는 조용하게 ‘온라인 범죄 피해 법(Online Criminal Harm Act)’이 통과되었다. 의회는 온라인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정부가 인종 및 종교적 조화 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는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CIVICUS 2023; Han 2023a). 포럼아시아(Forum-Asia)는 CIVICUS와 함께 온라인 범죄 피

해 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 비판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법적 장치 도입 자체를 촉구하기도 했다.<sup>1)</sup>

총리와 여당은 2023년에 불거진 사건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책임자 사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여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대상을 규제하고, 이미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있다고 믿게 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2023년 집권당은 정면으로 마주한 싱가포르의 잠재적 모순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닫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봉합하는데 분주했다. 하지만 공고히 유지되어 온 집권당의 체제를 둘러싼 높아진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대응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듯 보인다.

## 2. 대통령 선거: 집권당에 대한 지지와 심판 사이에서

부동산 스캔들, 뇌물 수수 의심, 부적절한 발언과 사생활 등 인민행동당의 도덕적 위기 속에서 9월 1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총선 전에 집권당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매년 집권당에 기울어진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는 한다(강운희·최인아 2018: 89). 게다가 이번 선거는 2017년 입후보 요건 제한으로 단독 후보로 나서 무투표로 당선된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이 임명된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래로 12년 만에 진행된 선거였다.<sup>2)</sup>

1) <https://forum-asia.org/?p=38412> (검색일: 2023.12.14.)

2)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2011년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의원내각제인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국고 사용과 주요 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 총리의 반대에도 부패관행조사국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결과는 인민행동당의 주요 인사인 타르만 산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hnam)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타르만은 70.4%라는 기록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의 전 최고 투자책임자 응콕송(Ng Kok Song)은 15.7%, 전국노동조합협의회(NTUC: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산하 보험회사 대표였던 탄킨리안(Tan Kin Lian)은 13.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66세의 타르만은 유일한 비중국계 후보로 인도계 타밀에 속한다. 2001년 주룽(Jurong)을 지역구로 출마하며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교육부 장관,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경제사회정책 조정 장관 등을 역임한 집권당의 핵심 인물이다. 신사적인 이미지의 정치인으로 총선 때마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그가 비중국계 최초의 총리가 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Wong 2023b). 그러나 2019년 중국계인 헝스위킷(Heng Swee Keat)이 총리 승계자로 지목되면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타르만은 총리 자리에서 멀어졌다.

선거 결과로만 보면 인민행동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일련의 스캔들로 받은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하며, 단기적 영향으로는 총선에서 의석을 잃는 것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Jackson 2023). 하지만 의석의 감소는 집권당에게 큰 타격이다. 이미 2020년 총선에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역대 최대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인민행동당의 의석 점유율은 처음으로 90% 이하로 떨어졌다. 인민행동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절대적이었던 싱가포르에서 10석을 차지한 야당이 권위주의적 정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김중호 2022: 84). 싱가포르에서 여당 너머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총선 전의 대통령 선거는 그 변화상을 가늠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sup>3)</sup>

집권당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중론 가운데, 타르만의 승리가 2017년과 마찬가지로 집권당에 의해 대통령 선거가 통제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Wong 2023b). 위기 상황에서 집권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인사를 전략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타르만은 집권당과는 거리를 두며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지만, 오랜 공직 생활과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인민행동당과 매우 밀접한 것은 명백하다. 2017년 대선에서도 당시 새롭게 도입된 소수민족 할당제가 집권당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거셌다(강윤희·최인아 2018: 85-89). 이 때문인지 한 정치분석가는 타르만의 당선이 인민행동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고 비평했다. 전 인민행동당 의원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부각되고 있으며, 타르만의 당선도 “정치 연극에 지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이다(Loh et al. 2023).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훼손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향의 표시였다. 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는 것이다. “투표를 망치는 것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선택이다”라고 주장한 한 활동가는 ‘투표를 망치지 말라’는 의견이 인민행동당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Han 2023b).

---

3) 싱가포르에서 야당이 약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일부 행보는 대중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Workers' Party)의 라이사 칸(Racesah Khan)은 역사상 최연소 여성의원으로 당선되는 기록을 세웠지만 2021년 11월 거짓 증언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임했다(김종호 2022: 83). 2023년 7월, 탄추안진 국회의장과 쉹리후이 의원이 외도로 사임한지 이틀 만에 노동당의 레온 페레라(Leon Perera) 의원과 니콜 세아(Nicole Seah) 당원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들 역시 사임했다. 이로 인해 노동당 내에서도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Tan 2023e).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역사상 최대로 확보했던 10석 중 2석을 잃은 노동당은 지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를 다시 안게 되었다.

투표용지 훼손은 일련의 문제적인 발언으로 비판받은 야권의 기대 후보 탄킨리안(Tan Kin Lian)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는 여러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차별,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훼손 주장은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권 활동가들은 여당에 대한 반대 정서 때문에 탄킨리안에게 투표하는 것과 노골적인 차별지향을 비판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 사이에서 논쟁했다(Vochelet 2023).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표용지의 2% 정도만이 무효표였고 “압도적인 다수가 이번 선거에 참여할 가치가 있고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뒤따랐다(Wong 2023b). 선거유세 중이었던 타르만은 투표용지 훼손 주장에 대해 “이번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대통령 선거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개인을 선출하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Jie 2023a).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대통령에 대한 강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키워드 중 하나였다. 그만큼 후보들과 인민행동당은 여당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유권자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타르만은 “공공부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모든 고위 관료는 선임 정치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선임에게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며 개인에 따라 다르다”며 ‘개인’으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거나 재정 보유하고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독립적일 것이라고 취임식에서 언급하는 등 대중의 의심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Goh 2023a; Heijmans 2023a).

인민행동당과 타르만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지만, 타르만의 당선을 집권당의 여전한 우위로만 해석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70.4%라는 전례 없는 압도적인 득표율은 ‘집권당의 타르만’이 아니라, 매력적인 ‘개인으로서 타르만’을 독립적으로 지지한 유권자들로 인해 가능했다(Lau 2023b; Lee et al. 2023). 반기득권 정서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달성한 높은 득표율이 유권자들이 타르만을 충분히 독립적인 후보로 인지한 결과라는 것이다. 당선 이후 타르만은 70.4%의 득표율이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연계해 생각하거나 정치적인 선거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립성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인 선거가 아니라는 관점도 지극히 정치적이다. 오히려 타르만의 당선이 가진 의미를 다인종 사회인 싱가포르의 특징과 연계해 해석해볼 수 있다. 인도계인 타르만의 당선이 다인종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Singh 2023). 여기에는 인종을 충분히 활용한 타르만의 유세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세 연설에서 타르만은 싱가포르가 비중국계 총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인종과 무관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싱가포르의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The Economic Times 2023). 리셴룽 총리는 타르만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투표에 있어서 인종이 예전보다 작은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Prime Minister Office 2023b).

2023년 대통령 선거는 여전한 집권당에 대한 지지와 분출되기 시작한 회의와 불만 사이를 오가며 관성적으로 집권당에 유리한 결과로 다시 안착했다. 하지만 한 때 유력한 총리 후보로 여겨졌던 인도계 타밀 정치인이 놀라운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은 인종 간의 조화를 중시하지만 특정한 장벽을 넘을 수 없었던 다인종 사회 싱가포르가 보인 일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 3. 총선을 향하여: 야권 연대와 총리 승계 발표

2023년에는 2025년 11월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행보가 본격화되었다. 총선이 2023년 조기에 치러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생활비 상승,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부가가치세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등의 불확실한 상황이 인민행동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총선은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았다(Choo 2023). 2023년에 조기 총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여당의 전략이듯, 야권에서는 연합 형성을 통해 총선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인민의목소리(Peoples Voice), 개혁당, 인민의힘당(People's Power Party),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은 1월부터 연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6월에는 'People's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에는 국민연대당(National Solidarity Party), 레드닷연합(Red Dot United), 싱가포르인민의당(Singapore People's Party), 싱가포르연합당(Singapore United Party)이 파트너십 형태인 'The Coalition' 구성에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에게 견제와 균형을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Iau 2023).

People's Alliance는 중앙실행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적인 의견을 내는 정식단체로 별도의 등록과정을 거쳤으며, 높은 생활비,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 공공주택의 경제성, 고용 불안, 이주 등과 같은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ham 2023). The Coalition도 생계문제와 POFMA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각당의 입장을 중시하는 비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유권자들의 야권 연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Han 2023c). 현재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노동당과 진보싱가포르당(Progress Singapore Party)은 어떠한 야권 연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주류 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만의 연대가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분석가들은 야권 연대가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정당이

노동당과 진보싱가포르당의 우위 속에서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Lau 2023a).

야권 연대를 둘러싼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집권당의 총선 시계는 11월 초에 나온 총리의 승계 발표로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리가 인민행동당 창립 70주년인 2024년 11월에 부총리에게 총리직을 인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총리는 “부총리와 그의 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정치적 전환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총선 전에 마통을 넘겨도 부총리가 충분히 능력을 입증해서 싱가포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AP 2023).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if all goes well)”이라는 전제를 붙여 그 믿음의 깊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류했던 은퇴를 공식화한 총리는 눈물을 참으며 승계 이후에는 신임 총리를 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신임 총리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총리의 발언은 은퇴 이후에도 내각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리셴룽은 승계 발표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퇴임 이후의 역할을 질문받자, 선임장관 전례를 언급하며 리완유가 내각에 남아 있던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Davina 2023b).

싱가포르에서 집권당의 총선 승리는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에 대한 인민행동당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다(Heijmans 2023b). 2020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균열이 발생했고, 올해 불거진 다양한 정치적 논란이 집권당을 뒤흔들었다. 총리 일가의 갈등이 다시 가시화되면서 인민행동당에게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다. 총리의 동생인 리셴양이 리완유의 유언장 처리와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허위 증거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리완유는 2015년 타계하기 전 자신의 사후에 자택을 철거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2017년 리셴룽 총리는

유언장 작성에 관여한 리셴양과 변호사인 그의 아내가 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리셴양은 총리가 리관유를 우상화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리셴양은 경찰 조사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두려움을 표했고, 그의 아들 성우 리(Shengwu Li)도 X(트위터)를 통해 조사 때문에 싱가포르에 돌아가면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David 2023). 공개롭게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리셴양이 대신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인터뷰한 블룸버그(Bloomberg)의 보도보다 하루 먼저 알려졌다. 이후에도 CNA는 재빠르게 2020년 리셴양이 리관유의 유언장 집행 과정에서 선서 하에 거짓말을 했고, 이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고려하는 데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했다(Goh 2023).

총선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로렌스 윈 부총리에게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2023년 10월 로렌스 윈은 4세대 팀과 함께 2022년 6월에 시작한 포워드 싱가포르(Forward Singapore) 훈련을 마무리하고 18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워드 싱가포르는 변화된 환경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경제와 일자리, 교육과 평생학습, 건강과 사회적 지지, 가정과 거주환경, 환경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정체성 등의 여섯 가지 주제를 2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토론했다. 포워드 싱가포르는 2022년 4월 후임 총리로 지목된 로렌스 윈을 포함한 4세대의 역량과 이들이 가진 싱가포르에 대한 미래 발전상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소셜미디어 Reddit에서는 2013년 발표된 ‘Our Singapore Conversation’의 내용과 포워드 싱가포르의 보고서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Loon 2023). 물질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여러

단계에서의 가족 지원, 노년의 삶에 대한 존중, 소외계층 부양 등을 위한 정책이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Reddit 유저들은 16개월 동안의 토론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참신하지 않으며, 최근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스스로 성찰이 부족한 보고서로 인해 4세대 리더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인민행동당은 자체 발행 잡지 Petir을 통해서 “똑같지만 다르다”면서 로렌스 왕의 포워드 싱가포르가 공유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을 가져왔다거나, 싱가포르인들을 하나로 묶는 ‘마음의 작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Petir 2023a; 2023b). 리셴룽 총리는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포워드 싱가포르가 야심찬 작업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로렌스 왕을 포함한 4세대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로렌스 왕이 이끌 차기 총선의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총선에서 약진했던 야권이 정부를 견제하는 보다 유의미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Ⅲ. 경제

#### 1. 경기침체 장기화의 위기 속 점진적인 경제회복

2023년 싱가포르의 경제는 2021년의 8.9%, 2022년의 3.6% 성장에 비하면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2분기 경기침체의 문턱에서 2023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0.5~2.5%에서 0.5~1.5%로 좁히기도 했다(Lin 2023). 경제학자들도 6월에는 1.4%였던 경제성장 전망을 9월에는 1%로 낮추었다(CNA 2023b). 12월 31일 발표된 리셴룽 총리의 신년사에 따

르면, 2023년 경제는 1.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3분기의 경제성장률은 1.1%로 전반적으로는 낮지만, 0.5%였던 2분기와 0.4%였던 1분기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가 집계되었다. 경기침체를 가까스로 피해간 2분기에 비해 3분기의 지표는 여러 방면에서 나아졌다. 산업생산과 수출이 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위험이 커졌지만, 3분기의 회복과 관광객 증가로 시급한 위기는 넘긴 것이다(Lin 2023). 세계 전자제품시장의 침체로 2022년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었던 제조업은 분기 내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월별로 보면 유의미한 수치도 기록했다. 10월에만 7.6% 성장하면서 2022년 10월 이래로 1년 동안 계속된 마이너스 상태를 처음으로 벗어난 것이다(EDB 2023). 11월에도 전달에 비하면 낮지만 1.0%의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 제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었다. 4분기에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듯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해 3분기에 비하면 눈에 띄는 성장률을 달성했다. 건설과 제조업 부문의 개선이 성장의 동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024년의 GDP 성장률도 2.2%로 2023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k 2024).

표 1. 2022-2023 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

	2022	202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명목 GDP(\$)	6,435억	1,591억	1,632억	1,649억
실질 GDP 성장률(%)	3.6	0.4	0.5	1.1
상품 수출(백만\$)	709,967	158,921	153,202	160,431
상품 수입(백만\$)	655,436	138,968	137,641	144,974
고용(천명)	3,897.5	+38.6	+26.8	+29.6
실업률(%)	2.1	1.8	1.9	2.0
물가상승률(%)	6.1	6.1	5.1	4.1

출처: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3a, 2023b

\* 2023년 12월 26일 기준으로 3분기 경제지표까지만 발표된 상태로 4분기는 집계되지 않아 포함하지 못함. 표 1과 표 2는 전년도 대비 연속성 있는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해 김종호(2021), 김종호·김지훈(2023)의 경제 파트 표와 동일한 항목을 정리함



관광의 회복은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관광청은 2023년에 1,200~1,400만 명의 국제 방문객이 싱가포르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기준으로 약 1,126만 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으며, 이는 2022년 10월에 비하면 37.8%가 증가한 수치이다(Tan 2023d). 숙박업은 1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로 2, 3분기에는 성장 추세가 완화되었으나 모든 분기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제조업에서도 운송엔지니어링 부문은 1분기 17.7%, 2분기 18.3%, 3분기 16.6%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여객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2022-2023 싱가포르 산업별 성장률 (단위: %)

	2022		2023		
	4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금융/보험	-0.3	1.4	-0.9	-1.7	1.5
제조업	-2.6	2.5	-5.6	-7.3	-4.6
정보 통신	5.6	8.6	6.1	5.0	5.6
기업 및 전문직 서비스	6.1	7.6	5.7	1.7	0.8
행정지원 서비스업	10.5	6.6	11.4	6.3	2.0
기타 서비스	6.0	5.2	5.3	3.8	4.4
건설	10.0	6.7	7.2	6.8	6.3
도매	2.4	3.2	-2.5	1.1	1.2
소매	5.1	8.4	2.5	2.6	2.2
교통/저장	2.5	4.0	0.7	4.6	1.1
숙박업	7.8	0.5	21.9	13.0	12.9
요식업	19.6	18.2	12.2	5.7	3.5
부동산	15.2	14.1	9.2	12.0	3.4

출처: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3a; 2023b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문은 관광의 회복으로 성장 가

능성이 있지만,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같이 대외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의 성장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금융/보험 부문은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3분기에 접어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sup>4)</sup> 10-11월의 제조업 성장이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 속에서 여전히 전망이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다. 경제회복의 둔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2분기에는 고용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00명 감소하였다. 인력부는 대외 수요 전망이 높지 않은 가운데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의 고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관광업 회복과 연말의 이벤트 증가로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Ng 2023a). 3분기는 2분기보다 고용이 증가했지만,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최종적인 고용성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2년 3분기에 7.3%까지 올랐던 물가는 2023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낮아져 3분기에는 4.1%를 기록했다.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의 가격이 4.8%, 교통비가 4.9%, 여가와 문화 활동비가 5.3%로 평균치인 4.1%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행비용과 서비스 비

4) 저조한 금융/보험 부문의 성장과 달리 언론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높아진 싱가포르의 위상을 주의 깊게 다루었다. 오랜 경쟁 지역이었던 홍콩에서 시위와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이어졌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다국적 기업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1위를 53년 동안 차지했던 홍콩은 2023년 처음으로 싱가포르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다(Lee 2023).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가 2024년 홍콩은 건너뛰고 싱가포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도 두 도시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듯하다(Ruehl 2023). 하지만 높아진 대외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전으로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우위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도 하다. 금융회사들이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본 시장 규모는 홍콩을 따라잡지 못하며 중국 시장을 향하는 관문으로 여겨지는 홍콩과 달리 싱가포르가 연결하는 동남아 시장의 규모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Chanjaroen et al. 2023). 그러나 앞으로 싱가포르의 대외적 위상 변화가 전인할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

용의 상승, 대중교통 요금과 Certificate of Entitlement(COE) 가격의 인상,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es)의 인상이 높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3a).<sup>5)</sup> 2022년 3분기 이후에 비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물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과 상승 추이가 관찰되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2월에는 교통 및 숙박요금을 제외한 물가지표인 근원 물가(core inflation)가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5.5%를 기록했으며,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10월에는 갑자기 3.3%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Ang 2023c; Huang 2023).

## 2. 연이은 증세와 공공요금 인상

싱가포르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재화용역세가 7%에서 8%로 인상되었다. 2024년 1월부터는 1%가 추가 인상되어 9%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증세라고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OCBC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40%의 싱가포르인만이 기본 이상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며, 23%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만 가능하다고 응답했다(Lun 2023). 높은 이자율 때문에 부채 상황을 우선시하면서 저축을 하지 못하며, 은퇴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투자를 줄이는 경향도 나타났다. 9%는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생활수준을 낮출 계획도 있다고 응답해 생활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

5) COE는 싱가포르에서 차량 소유에 필요한 구입자격으로 차종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한 번 자격을 취득하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월별로 COE 발급 규모를 정하면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자격을 취득하고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 2023년에는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Tjoe 2023).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도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12월 말부터 버스와 MRT(Mass Rapid Transit)의 대중교통 요금이 7% 인상되었으며, 10월 9일부터는 2014년 이래 처음으로 우편요금이 65% 올랐다. 10~12월 가구용 전기세가 이전 분기 대비 3.5% 인상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수도요금이 18% 오를 것이라는 발표도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9월 말에 연이어 발표되었다(Sato 2023). CNA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보도하면서도, 2.9%가 인상된 전년도에 비해 7% 인상은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다(Ng 2023b). 성인 대중교통 요금은 최대 11%가 오를 수 있어 2019년 7%의 인상 이후 가장 가파른 인상폭이지만, 운송 업체인 SBS Transit과 SMRT Trains가 대중교통위원회(PTC: Public Transportation Council)에 요청한 22.6%의 인상 중 일부만 승인되어 향후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Cheng and Tjoe 2023).

반면에,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가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중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였다. 인력부는 명목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2024년에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다(MOM 2023/11/30).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이 연이은 가운데 실질 중위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은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세 인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실시하였다.<sup>6)</sup>

6) 인플레이션과 재화용역세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책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https://www.mof.gov.sg/singaporebudget/budget-2023/budget-statement/a-performance-and-outlook#Performance-and-Outlook> (검색일: 2023. 12.29.)

로렌스 윈 부총리는 2월의 예산안 발표에서 재화용역세 바우처 (GST Voucher) 제도, 보증 패키지(Assurance Package), CDC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바우처 등이 영구적으로 중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부유한 소비자가 더 높은 실효 세율을 부담할 것이라며 ‘공평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상승에 맞서 싸워야 하는 작은 상점은 재화용역세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작은 상점의 경우 증세만이 아니라 전기세 인상, 대규모 슈퍼마켓 체인과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이미 분투하고 있었다. 공공주택 상가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는 시민은 CDC 바우처가 그나마 도움이 되지만 바우처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토로했다(Quek 2023a). 11월에 열린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은 정부의 일회성 재정지원을 비판하며 계층별 공과금 차등 책정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oh 2023b). 진보싱가포르당은 노동당을 지지하며 재화용역세를 7%로 다시 인하하고 최저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인상시키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실질 중위소득이 감소하는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은 공고하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여러 지원책도 한시적인데다, 인플레이션과 재화용역세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저소득층 가구에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 일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9월에 발표된 “최저 소득 기준 2023: 비용 상승 시대의 가계 예산” 보고서는 한 부모 가구, 4인 가

구, 독거노인 가구 등에게 필요한 월 최소 소득을 계산하고, 2020년 대비 최대 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Ng et al. 2023). 연구팀은 소득 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오히려 정부는 보고서가 가구별 필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최저임금제가 현재의 점진적 임금 개선 모델(PWM: Progressive Wage Model)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Ministry of Finance 2023/09/14).

정부는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반대해왔고, 2015년 그 대안으로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초기 급여 하한선을 보장하고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점진적 임금 개선 모델을 채택하였다(최인아 2019: 134-135). 최저임금제 도입 논쟁이 인플레이션과 세금 인상 속에서 최저 소득 기준 보고서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점진적 임금 개선 모델이 적용 직종을 확대하고 임금도 인상하고 있다며 연구진의 주장을 일축했다. 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플레이션, 연이은 증세, 생활에 필요수적인 공공요금의 인상 속에서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비 지출 부담은 늘어난 가운데 2023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 3. 불평등 문제의 공론화

불평등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화두가 아니지만, 2023년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표명과 공론화가 사소한 사건을 통해 예상치 못한 순간 일어나고,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였던 부패혐의와 맞물려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초부터 싱가포르에서는 갑작스럽게 부상한 명품 가방 논쟁이 격차 문제로 확장되어 불평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17살 소녀가 틱톡(Tik Tok)에 아버지에게 처음

으로 “럭셔리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찰스앤키스(Charles & Keith)의 토트백을 자랑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BBC 2023). 토트백은 79.90 SGD, 한화로는 약 8만원 정도였다. 찰스앤키스는 가방과 신발 등을 판매하는 싱가포르의 중저가 잡화 브랜드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괜찮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하다. 약 9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해당 영상에는 통상적으로 ‘럭셔리’ 브랜드로 인식되지 않는 찰스앤키스 가방을 명품처럼 대하는 17살 소녀의 언행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이 등장하며 명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17살의 틱톡커는 이에 다시 영상을 게시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찰스앤키스는 충분히 명품 가방이 될 수 있다고 해명을 해야 했다.

로렌스 왕 부총리는 공식행사에서 이 해프닝을 언급하면서 “인생에는 타인과 비교하고, 누가 더 나은지 확인하려는 유혹이 언제나 있다”면서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려 하지 말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Tan 2023a). 로렌스 왕의 발언에 대해 Reddit 유저들은 “불건전한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월급이나 올려라”, “엄청난 급여를 받는 당신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도 노동계급과 관련되거나 이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없다”, “왜 학자들이 고위공직을 선호하고, 고위공직자들은 은퇴한 후에 GLC (Government-Linked Companies)로 가는가”, “이것은 수십 년 간 능력주의에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싱가포르 교육 시스템도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가”, “로렌스 왕과 모든 장관들이 MRT를 타고 출근하고 HDB 아파트(공공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라며 현 상황의 부조리함을 비판했다.<sup>7)</sup>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로렌스 왕의 발언

7) [https://www.reddit.com/r/singapore/comments/10dc8k1/lawrence\\_wong\\_namedrops\\_charles\\_keith\\_saga\\_as/](https://www.reddit.com/r/singapore/comments/10dc8k1/lawrence_wong_namedrops_charles_keith_saga_as/) (검색일: 2023.12.29.)

은 특권층의 비현실적인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접근도 여전히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기존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리마 야콥 전 대통령은 4월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특권층의 고착화 방지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교육과 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Navene 2023). 정부의 방안은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싱가포르의 뿌리 깊은 원칙인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싱가포르인에게 공평하게 능력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불평등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레드닷연합은(RDU)은 집권당의 부동산 스캔들이 장관이 누리는 특권과 싱가포르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었다면서 부의 평등을 주장했다(The Online Citizen 2023). 장관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의 시장가치와 서민의 공공주택 임대료가 비교되면서 격차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거주민들은 2022년부터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아왔다. 2022년 말에는 HDB(Housing Development Board) 아파트 임대료가 지난 2년 반 동안 50% 가까이 올랐고, 일부 중심가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Yong 2022). 2023년 8월에는 0.1% 상승으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8%가 상승한 수치로 상당히 높은 임대료가 2023년 내내 지속되었다(Loi 2023). 공공주택이 아니더라도 민간주택인 콘도의 임대료도 17.3% 상승해 싱가포르인들이 주택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청원도 등장했다.<sup>8)</sup> 청원에는 1,078명이 최종적으로

---

8) <https://www.ipetitions.com/petition/we-singaporean-calling-for-the-government-to> (검색일: 2024.1.2.)



서명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부패관행조사국의 조사를 “동료들에 대한 조사”라고 비판하며 정부기관과 무관한 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 “자기 점검이 어떻게 노골적인 불의와 은폐로 이루어지는지 보았다”, “자기 자신은 결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든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을 멈추어야 한다”, “많은 혜택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진 수백만 달러 연봉의 고위 장관”, “노동당이나 진보싱가포르당이 유사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이들의 자체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인가” 등의 청원 댓글은 사건에 대한 형식화된 의회토론과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정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댓글은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꼭두각시에서 탈피해 의무를 다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년 싱가포르에서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화두는 경제성장의 둔화, 물가상승, 실질 소득의 감소,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속에서 불거진 사건들로 인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집권당은 싱가포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었지만 새롭지 않았고, 특권층이 가진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갔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V. 대외관계

##### 1. 미중 균형외교와 협력의 다각화

2023년 싱가포르는 여전히 경쟁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6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포

럼에서 발라크리슈난 외무부 장관은 미중 경쟁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냉전 스타일의 줄 세우기를 거침없이 비판했다(박종현 2023/06/18). 9월에 진행한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싱가포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속국(vassal state)’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심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와 식량 안보, 기후변화, 디지털 혁명 등을 함께 해결할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하기도 했다(CNN 2023).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입장은 2022년 11월 발라크리슈난 외무부 장관이 미중 어디에도 줄을 서지 않는 국가 간의 ‘비동맹 운동(Non-Aligned Movement)’(김종호 2023)를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한다. 2022년에는 비동맹 운동, 2023년에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내세우며 싱가포르는 미중 중심 구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양국 사이를 오가는 중재자로서의 면모도 잃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정상회의 2023’에서 리셴룽 총리는 미중 경쟁에 제3국이 가세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국’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시선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조 2023). 동시에, 중국도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대만과 비공식적이지만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고, 미국과도 우호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중요한 축인 대만과 관련된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Woon 2023). 중국과도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온 싱가포르에게 미중 소통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2023년 싱가포르는 중국과 기존의 협력관계를 확대했고, 미국과는 새로운 협력의 물꼬를 트는 등 양국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나 중국을 방문한 리셴룽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Tan 2023b). 싱가포르와 중국은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전방위적 고품질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All-Round High-Quality Future-Oriented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구상했던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십(All-Round Cooperative Partnership Progressing with the Times)’ 관계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중국의 리창(李强) 신임 총리는 리셴룽 총리를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Tan 2023b). 양국의 이번 만남은 서로의 친밀함을 과시하고 앞으로도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 그 자체였다.

중국과의 공식적인 관계 격상 이후 로렌스 워 부총리도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새롭게 출범한 중국 지도부를 만났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텐진(天津)에서 열린 제19차 상-중양자협력공동협의회(JCBC: 19th Joint Council for Bilateral Cooperation) 참석차 중국을 다시 방문했다.<sup>9)</sup> 디지털 경제, 재생 및 청정에너지, 기타 신흥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이 논의되었고, 20개 이상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졌다. 상호 30일 간의 비자 면제 협정도 체결하여 앞으로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인적교류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3년

---

9) 총리 승계를 앞둔 로렌스 워 부총리에게는 미중 경쟁 속 싱가포르의 입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조정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로렌스 워는 첫 중국 방문 이후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구로 지내길 바란다”면서 심화되는 미중 경쟁에서 싱가포르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기조를 되풀이 했다(Tan 2023c). 4세대 지도부도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대전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이 싱가포르를 확실한 우방으로 포섭하려고 할 때 4세대 지도부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Yaacob 2023).

7월, 코로나19로 인해 비자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협의하면서 항공편과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한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CSFTA: 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개정안이 타결되어 싱가포르는 중국에서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소매, 임대업 등 20개 이상의 서비스 부문과 투자에 있어 보다 넓은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023년에는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되었다. 양국의 국방장관은 6월 국방 통신 핫라인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설치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중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발표된 핫라인 설치 계획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이자 환영할만한 발전으로 평가되었다 (Strangio 2023). 5월에는 양국의 해양 협력 훈련이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열렸고, 9월에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군과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이 양자 군사합동훈련을 2주 동안 실시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훈련의 목적을 양국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국방 관계를 강조하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Wong 2023a).

미국과는 전통적인 경제와 안보협력을 넘어 기술 파트너십 구축이 논의되었다.<sup>10)</sup> 로렌스 워 부총리는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장기간 미국을 실무 방문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이 핵심

10)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술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은 2023년에도 여전히 공고한 안보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양국은 공급안보협정(SOSA)을 체결해 국방과 관련된 공급망 중단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협정 체결을 양국 관계의 강화이자 심화로 표현하면서 싱가포르와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3).

및 신기술 대화(CET: U.S.-Singapor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인프라·기술 공급망, 디지털 경제·데이터 거버넌스, 양자 정보 과학·기술, 국방 혁신 등이 중점적인 논의사항이었다.

로렌스 워그 부총리는 싱가포르가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을지라도 활발한 경제교류와 혁신의 추구가 양국의 협력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Khoo 2023). 싱가포르의 작은 국가 규모가 오히려 기술을 빠르게 채택하는 배경이 된다면서 기술 협력의 적격자로 스스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양국의 대화는 싱가포르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관심 있는 국가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도 가진다. 기후위기와 우주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0월 10일 양자 우주 대화에서는 지구 관측을 최우선 협력 분야로 협의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3/10/12). 기후변화, 재난 대비, 천연자원 활용 개선, 대기 질 등의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 2. 주변국, 유럽, 중동과의 외교

연초부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모색에 분주했다. 발라크리슈난 외무부 장관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양국을 “오랜 친구”로 지칭하며 과거의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Zunaira 2023). 2022년 11월 새롭게 취임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의 새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2년에 양국 사이의 오랜 이슈였던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섬의 주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듯 했으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쟁이 정리될 기미를 보이자 싱가포르도 우호적인 태도로 전환했다고 불

수 있다. 안와르 총리는 2023년 1월,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국제 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을 종결시켰다(The Straits Times 2023).<sup>11)</sup>

1월 30일에는 안와르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및 녹색경제 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디지털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갈등을 봉합하고 신흥분야의 협력에 집중한 것이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이 “따뜻하고 오랜 파트너십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말레이시아 새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Chin 2023). 조호르바루에 특별경제구역(Johor- 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을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도 공개해 경제협력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다. 페드라 브랑카 섬의 주권문제는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말레이시아의 이의 제기 에 따라 2022년 5월 중단된 페드라 브랑카 개발 프로젝트의 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다. 싱가포르는 2021년 페드라 브랑카 섬에서 간척 사업을 시작하고, 항해 시설을 보수해 선박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했다(Cheng 2021). 발라크리슈 난 외무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주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상호 협력과 선의의 정신”으로 말레이시아의 이의를 받아들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malaymail 2023).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과정을 공개하여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부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

---

11) 페드라 브랑카 섬 분쟁은 1979년 말레이시아가 이 섬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반박하면서 문제 제기를 이어가다 양국이 이를 200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2008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페드라 브랑카섬의 영유권을 싱가포르가 가진다고 판결하였다(주싱가포르대사관 2008/06/06).

다. 2023년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외교는 해묵은 갈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며 유화적인 접근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8월에는 리셴룽 총리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총리급 연례 회담을 신설하며,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s)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지난 3월에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6개의 양해각서와 9개의 B2B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이 “성숙한 실용주의” 외교를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Izzuddin 2023).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랬다. 양국은 2022년 체결한 비행정보지역(FIR) 경계 재조정 협정에 대한 승인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동으로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협의했던 방위협력협정(DCA)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함으로써 2023년에 보다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이전 예정인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투자를 싱가포르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로, 직접 투자의 31.5%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024년 2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양국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양측이 지속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Zalizan 2023).

2023년에는 주변국과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되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재생 에너지 개발과 수입을 추진한 것이다. 2022년 11월 싱가포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5년 이내에 연간 2GW의 재생 에너지 수입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 연간 전력 수요의 15%로 최대 규모의 에너지 수입 계약으로 꼽힌다(강종훈 2023). 베트남은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1.2GW를, 캄보디아는 1GW의 저탄소 재생 에너지 전력을 싱가포르에 수출하게 되었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은 섬나라인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재생 에너지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Sarmiento 2023).

지난 5월 미얀마에서는 인도주의적 외교관 호송대가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곤 주재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 2명이 탑승한 차량이 도로에서 총격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대사관 직원은 무사히 양곤으로 돌아왔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공격을 비난하고 미얀마가 2021년 4월 아세안이 협의한 평화 회복을 위한 5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aharudin 2023a). 같은 달, 싱가포르 기업과 은행이 미얀마의 군보급품 흐름에 관련되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오자, 발라크리슈난 외무부 장관은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은행에 경고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Baharudin 2023b). 6월에는 태국이 아세안 외무장관들에게 제안한 미얀마 군부와의 회담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유럽, 중동과는 디지털 경제 부문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유럽 연합(EU)과는 2월 1일 디지털 기술 분야 협력을 약속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 반도체, 전자 식별, 유럽연합과 동남아 연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이버 보안 분야 등에서 앞으로 협력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23/02/01). 싱가포르는 유럽연합이 일본과 한국에 이어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다. 바레인은 아세안 지역 최초로 싱가포르에 경제개발위원회 사무소를 개설하고 싱가포르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Ho 2023). 지난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고 양국 무역의 다각화, 기후 협약 이행 노력, 디지털 경제 등에서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논의했다. 만남 이후 리셴 룡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들이 동남아로 향하는 관문으로 싱가포르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싱가포르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등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했다(CNA 2023c).

### 3. 한국과의 관계

2023년 싱가포르는 한국과도 녹색경제 분야의 협력을 촉진했다.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 정부와 한국 기업 현대자동차가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발전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는 2023년 11월 싱가포르의 제조업 산업단지 주룽 혁신지구에서 문을 연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아 기술력을 발전시킬 계획을 설명했다(편은지 2023). 시장이 작은 싱가포르는 혁신 기술을 구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이며, 친환경 자동차 제조 기술을 가진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모색하는 싱가포르에게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로렌스 워 부총리는 HMGICS의 개관식 연설에서 현대자동차의 투자가 싱가포르가 가진 첨단 제조, 디지털 기술, 혁신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혁신의 기지로서 싱가포르의 가치를 강조하며 협력을 환영했다(Prime Minister’s Office 2023c).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선급(KR)도 싱가포르를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최인수 2023).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aritime & Port Authority)은 11월 한

국에서 한국선급(KR)을 만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박 대체 연료 기술개발,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적용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의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협력 방안의 모색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도 이어졌다. 2022년 11월 체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이 2023년 1월 14일 양국에서 발효되었다. 5월에는 한국에서 제1차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가 개최되어 양국의 25개 디지털 기업이 디지털 분야의 상호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싱가포르 통산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었다. 2023년은 디지털동반자협정 이행을 시작한 해로 볼 수 있지만, 양자 간의 대화 이외에는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2023년에는 보건 분야의 협력도 눈에 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와 ‘한-싱 AI의료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헬스기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디지털헬스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싱가포르를 인식한 전략적 접근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 공동개발 추진 등의 연구 협력도 병행되었다(식약일보 2023). 지난 7월 싱가포르 보건부는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싱가포르에 설립 예정인 감염병청(Communicable Diseases Agency) 준비에 필요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래 질병 대비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NCID)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1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연구기관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 V. 결론

2023년 싱가포르는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부패혐의로 인한 집권당의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한 견제함의 과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다. 싱가포르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던 능력주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면서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야당과 여론의 비판, 투표용지 훼손을 통한 반대의사의 표명과 같이 집권당에 반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싱가포르에서 여전히 집권당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반면에, 야권의 연대가 유의미한 세력화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20년 총선에서 약진한 야당이 그동안 인상 깊은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야당의 사적 스캔들은 집권당의 여러 도덕적 위기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신뢰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에 의해 제기된 집권당의 부동산 스캔들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초기에 혐의를 주장한 야권 인사는 법적인 제지를 받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지지했던 후보자가 부적절한 젠더감수성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인해 비판을 면치 못하면서 야권 내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야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다가올 총선의 결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 치러진 지난 총선의 결과는 진보적인 청년 세대의 새로운 가치 지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김종호 2022). 경제성장 둔화,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2023년의 생활고는 집권당의 부패혐의와 맞물리면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조시켰다. 불평등이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것도 이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싱가포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고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인민행동당이

우려하는 가장 주요한 불안정 중 하나이다. 야당이 이 틈새를 파고들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균열을 더욱 넓히고,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2024년의 행보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한편, 총선은 2024년 말이나 그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Tang et al. 2023). 리셴룽 총리가 지난 11월 권력 이양의 시기를 2024년 11월로 발표하면서 이 시기에 맞춰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2024년은 인민행동당 창당 70주년이자 리셴룽 총리의 취임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총선을 앞둔 내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세대의 전면적인 등장이 총선에 미칠 영향도 2024년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로렌스 왕 부총리는 인민행동당 전당대회에서 싱가포르인이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Ang 2023b). 권력 이양은 총선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4세대 리더십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포워드 싱가포르(Forward Singapore)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4세대 리더십의 특징으로 부각된 바 있다(Jie 2023b). 일당 집권체제가 공고한 싱가포르에서 점점 거세지는 반대 의견과 인민행동당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정부가 정해놓은 방식 안에서만 표출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이 4세대 리더십 아래에서 어떻게 개선될지는 미지수이다. 4세대 리더십의 전환이 보다 민주적인 싱가포르를 만들 것인지, 정부가 구성한 경계 내에서 비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권당의 영향력을 재구성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비판적으로 응시하는 야권과 활동가들의 목소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024년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싱가포르 2023: 집권당의 부패혐의와 경제성장 둔화 속에 심화되는 불평등 213

리더십과 이를 견제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강윤희 · 최인아. 2018. “싱가포르 2017: 포스트-리완유 시대의 도전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28(1): 83-120.
- 강종훈. 2023. “싱가포르, 인니서 재생에너지 매년 2GW 수입…전력 수요 15% 규모.” 『연합뉴스』. 2023.9.9. (검색일: 2024.1.8.)
- 김중호. 2022. “싱가포르 2021: 코로나 전환기 ‘뉴노멀’을 모색하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 31(1): 77-124.
- 김중호 · 김지훈. 2023. “싱가포르 2022: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고령 사회의 제도적 조치를 선도한 국가.” 『동남아시아연구』 33(1): 65-12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 격상 모색.” 9월 8일.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53426&mid=a3020000000&systemcode=03> (검색일: 2024.1.8.)
- 식약일보. 2023. “한국-싱가포르 협력 강화…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월 12일. (검색일: 2024.1.9.)
- 박종현. 2023. ““미·중 줄세우기 그만, 이젠 다극화 질서”…싱가포르 외교장관의 일성 [박종현의 아세안 코너].” 『세계일보』. 6월 18일. (검색일: 2024.1.4.)
- 정성조. 2023. “리셴룽 中 ‘고립감’ 들지 않게 해야 미중 갈등 해소에 도움.” 『연합뉴스』. 10월 6일. (검색일: 2024.1.4.)
- 주싱가포르대사관. 2008. “페드라브랑카섬 영유권 분쟁 판결(ICJ).” 6월 6일.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4/view.do?seq=636817&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4/view.do?seq=636817&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

=&#3Bcompany\_nm= (검색일: 2024.2.27.)

최인수. 2023. “한국선급,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상호 협력.” 『에너지신문』, 11월 20일. (검색일: 2024.1.10.)

최인아. 2019. “싱가포르 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동남아시아연구』 29(1): 115-174.

편은지. 2023. “~~韓~~-싱가포르 전기·수소로 뭉친다... 중심엔 ‘현대차.’” 『데일리안』, 10월 12일. (검색일: 2024.1.9.)

Ang, Hwee Min. 2023a. “‘Difficult’ for Iswaran to undertake MP duties amid CPIB probe: Lawrence Wong.” *CNA*. 12 July. (검색일: 2023.12.11.)

\_\_\_\_\_. 2023b. “PAP must improve how it communicates, highlight differences between its policies and opposition’s: Lawrence Wong.” *CNA*. 5 November. (검색일: 2024.1.10.)

Ang, Prisca. 2023c. “S’pore core inflation edges up to 3.3% in October, breaking streak of slower price increases.” *The Straits Times*. 24 November. (검색일: 2023.12.27.)

AP. 2023. “Singapore’s prime minister plans to step down and hand over to his deputy before the 2025 election.” 5 November. (검색일: 2023.12.19.)

Ashley Tham. 2023. “Shanmugam, Balakrishnan bid above ‘guide rent’ for Ridout Road state properties: SLA.” *CNA*. 13 May. (검색일: 2023.12.11.)

Baharudin, Hariz. 2023a. “2 Singapore embassy employees in Yangon part of Asean convoy that was attacked in Myanmar: MFA.” *The Straits Times*. 9 May (검색일: 2024.1.8.)

\_\_\_\_\_. 2023b. “S’pore does not ban trade with Myanmar, but

- prevents some sale of items that can hurt civilians: Vivian.”  
*The Straits Times*. 4 July. (검색일: 2024.1.8.)
- BBC. 2023. “Singapore inequality: How a tote bag sparked a debate about class.” 30 January. (검색일: 2023.12.29.)
- Berthelsen, John. 2023. “Singapore’s ‘Fake News’ Law: Targeting Critics, Opponents.” *Asia Sentinel*. 28 June. (검색일: 2023.12.14.)
- Chanjaroen, Chanuaporn, Cathy Chan, and David Ramli. 2023. “Financial Firms Are Flocking to Singapore But Hong Kong Keeps Its Edge.” *TIME*. 6 October. (검색일: 2024.2.18.)
- Cheng, Kenneth. 2021. “Singapore to reclaim land around Pedra Branca to build facilities to improve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today*. 5 July. (검색일: 2024.1.5.)
- Cheng, Kenneth and Lee Nian Tjoe. 2023. “Bus, train fares to rise by up to 11 cents for adults; new \$96 concession pass for low-wage workers.” *The Straits Times*. 19 September. (검색일: 2023.12.27.)
- Chin, Soo Fang. 2023. “Singapore, Malaysia sign agreements to deepen cooperation in digital, green economy.” *The Straits Times*. 30 January. (검색일: 2024.1.5.)
- Choo, Daryl. 2023. “Look Ahead 2023: Economic uncertainty and inflation lower chances of an early General Election, risk deepening social divides, say analysts.” *today*. 6 January. (검색일: 2023.12.16.)
- CNA. 2023a. “In full: Speaker Tan Chuan-Jin's letter announcing his resignation, and PM Lee's reply.” 17 July. (검색일: 2023.12.11.)



- \_\_\_\_\_. 2023b. “Economists cut Singapore’s 2023 growth forecast to 1%: MAS survey.” 6 September. (검색일: 2023.12.28.)
- \_\_\_\_\_. 2023c. “Singapore, Saudi Arabia 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elevate ties to 'strategic partnership'.” 21 October. (검색일: 2024.1.9.)
- CNN. 2023. “Singapore will not become 'vassal state' between China and US, says foreign minister.” 20 September. (검색일: 2024. 1.4.)
- CIVICUS. 2023. *Singapore: Anti-fake news POFMA Law used to block news outlet, target critics as another law to regulate online content is passed.* <https://monitor.civicus.org/explore/singapore-anti-fake-news-pofma-law-used-to-block-news-outlet-target-critics-as-another-law-to-regulate-online-content-is-passed/> (검색일: 2023.12.14.)
- David, Rising. 2023. “Singapore PM’s brother says govt persecuting his family.” *AP*. 3 March. (검색일: 2023.12.20.)
- Davina Tham. 2023a. “Empathy and ability to serve does not depend on how rich or poor one is, says Shanmugam” *CNA*. 3 July. (검색일: 2023.12.14.)
- \_\_\_\_\_. 2023b. “Delicate balance between ‘over-watching’ and ‘overbearing’ after handover to 4G leaders: PM Lee.” *CNA*. 8 November. (검색일: 2023.12.21.)
- Economic Development Board. 2023. “Monthly Manufacturing Performance.” November.
- European Commission. 2023. “Eu and Singapore Launch Digital Partnership.” 1 Februar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67](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67) (검색일: 2024.1.9.)

- Ewe, Koh. 2023. "A Wave of Scandals Is Testing the Singaporean Government's Ability to Take Criticism." *TIME*. 2 August. (검색일: 2023.12.14.)
- Goh, Charlene. 2023. "Lee Hsien Yang unlikely to meet criteria to run for elected presidency given court finding of lying under oath: Lawyers." *CNA*. 4 March. (검색일: 2023.12.20.)
- Goh, Yan Han. 2023a. "Tharman sworn in as S'pore's 9th president, reiterates plans to unite nation." *The Straits Times*. 15 September. (검색일: 2023.12.16.)
- \_\_\_\_\_. 2023b. "House debates proposals to ease cost-of- living pressures; Govt stresses it will do more if needed." *The Straits Times*. 8 November. (검색일: 2023.12.29.)
- Han, Kirsten. 2023a. *The Online Criminal Harms Bill passed while we weren't looking*. 8 July. <https://www.wethecitizens.net/the-online-criminal-harms-bill-passed-while-we-werent-looking/> (검색일: 2023.12.14.)
- \_\_\_\_\_. 2023b. *Nope: The presidential election edition*. 22 August. <https://www.wethecitizens.net/presidential-election-nope/> (검색일: 2023.12.16.)
- \_\_\_\_\_. 2023c. *The Coalition isn't going to kick the PAP out, but hopes to make them sweat a bit*. 28 October. <https://www.wethecitizens.net/the-coalition-isnt-going-to-kick-the-pap-out-but-hopes-to-make-them-sweat-a-bit/> (검색일: 2023.12. 19.)
- Heijmans, Philp J. 2023a. "Singapore's Tharman Wins Presidential Election by a Landslide in Boost to Ruling Party." *TIME*. 1 September. (검색일: 2023.12.18.)
- \_\_\_\_\_. 2023b. "Singapore's Tharman Wins Presidential Election by

- a Landslide in Boost to Ruling Party.” *TIME*. 1 September. (검색일: 2023.12.18.)
- Ho, Jovi. 2023. “Bahrain Economic Development Board launches Singapore office, first in Asean.” *The Edge*. 14 November. (검색일: 2024.1.10.)
- Huang, Claire. 2023. “Singapore core inflation holds firm at 14-year high of 5.5% in February.” *The Straits Times*. 24 March. (검색일: 2023.12.27.)
- Iau, Jean. 2023. “Four opposition parties form coalition ahead of next GE.” *The Straits Times*. 28 October. (검색일: 2023.12.19.)
- Izzuddin, Mustafa. 2023. “A Maturing Pragmatism in Indonesia-Singapore Relations.” *The Diplomat*. 4 April. (검색일: 2024.1.8.)
- Khoo, Brenda. 2023. “S'pore can 'move quickly' due to small size, US is like-minded partner in critical & emerging tech: Lawrence Wong.” *mothership*. 13 October. (검색일: 2024.1.5.)
- Kok, Xinghui. 2024. “Singapore's Q4 GDP speeds up on firmer construction, manufacturing.” *Investing.com*. 1 January. (검색일: 2024.1.8.)
- Lau, Deborah. 2023a. “Analysis: Alliance of 4 opposition parties more about survival, given relative strength of WP, PSP.” *today*. 5 June. (검색일: 2023.12.19.)
- \_\_\_\_\_. 2023b. “PE 2023: President-elect Tharman ‘surprised’ by margin of win, believes ‘fair number’ of non-PAP supporters voted for him.” *today*. 2 September. (검색일: 2023.12.19.)
- Lee, Loraine and Nicole Lam. 2023. “PE 2023: ‘Tharman effect’

- behind landslide win that will raise expectations of his presidency, say analysts.” *today*. 2 September. (검색일: 2023.12.19.)
- Lee, Ying Shan. 2023. “Singapore is now the world’s freest economy, displacing Hong Kong after 53 years.” *CNBC*. 21 September. (검색일: 2024.2.18.)
- Lin, Chen. 2023. “Singapore downgrades GDP outlook, avoids recession.” *Reuters*. 11 August. (검색일: 2023.12.27.)
- Loh, Dylan and Tsubasa Suruga. 2023. “Singapore President-elect Tharman shifts PM Lee's succession into gear.” *Nikkei Asia*. 12 September. (검색일: 2023.12.15.)
- Loi, Esther. 2023. “HDB rents rise 0.1% in August, lowest in almost 2 years; condo rents down 1%.” *The Straits Times*. 27 September. (검색일: 2024.1.2.)
- Loon, Yee. 2023. “Redditor highlights similarity between ideas proposed in Forward SG with OSG report 10 years ago.” *Gutzy Asia*. 31 October. (검색일: 2023.12.21.)
- Lun, Tan Nai. 2023. “Fewer Singaporeans able to spend beyond basics, OCBC survey finds.” 9 November. (검색일: 2023.12.27.)
- Jackson, Will. 2023. “Why Singapore's recent spate of scandals have rocked the country.” *ABC/Reuters*. 8 August. (검색일: 2023.12.16.)
- Jie, Ching Shi. 2023a. ““We shouldn't look at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political lens’: Tharman on online comments about spoiling votes.” *asiaone*. 24 August. (검색일: 2023.12.16.)
- Jie, Woo Jun. 2023b. “Commentary: Forward Singapore shows the

- emerging contours of 4G leadership style.” *CNA*. 9 November. (검색일: 2024.2.19.)
- Malaymail. 2023. “PM Anwar ‘an old friend of Singapore’, development works at Pedra Branca remains paused, says Singapore FM.” 27 February. (검색일: 2024.1.5.)
- Mokhtar Faris and Philp J. Heijmans. 2023. “Singapore’s Parliament Speaker Resigns in Latest Blow to Ruling Party.” *TIME*. 17 July. (검색일: 2023.12.11.)
- Ministry of Finance. “Joint MOF-MOM-MSF Response to the Minimum Income Standards 2023 Study on Household Budgets in a Time of Rising Costs by LKYSPP and NTU.” 14 September. <https://www.mof.gov.sg/news-publications/press-releases/joint-mof-mom-msf-response-to-the-minimum-income-standards-2023-study-on-household-budgets-in-a-time-of-rising-costs-by-lkyspp-and-ntu> (검색일: 2023.12.29.)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2023a. *1st-3rd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3*.
- \_\_\_\_\_. 2023b.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2*.
- MOM. “Labour Force in Singapore Advance Release 2023.” 30 November. <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3/1130-labour-force-in-singapore-advance-release-2023> (검색일: 2023.12.28.)
- Navene, Elangovan. 2023. “Govt needs to ‘rethink approach’ to education and work so that advantages, privileges don’t become entrenched: President Halimah.” today. 10 April. (검색일: 2023.12.29.)
- Ng, Abigail. 2023a. “Singapore’s resident employment falls for the

- first time in 3 years.” *CNA*. 14 September. (검색일: 2023.12.28.)
- \_\_\_\_\_. 2023b. “Public transport fare hike is small compared to the increase in operating costs, analysts say.” *CNA*. 18 September. (검색일: 2023.12.27.)
- Ng, K.H., Wong Y.L., Teo, Y.Y., Neo, Y.W., Maulod, A., & Chok, S. 2023. *Minimum Income Standard 2023: Household budgets in a time of rising costs*.
- Petir. 2023a. “How does Forward SG fit with the causes our MPs champion?” 1 November. (검색일: 2023.12.21.)
- \_\_\_\_\_. 2023b. “Here is why the Forward Singapore exercise matters.” 2 November. (검색일: 2023.12.21.)
- Prime Minister Office. 2023a. *Rental of State Properties at Ridout Road by Minister K Shanmugam and Minister Vivian Balakrishnan*.
- \_\_\_\_\_. 2023b. “Transcript of Speech by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at the swearing-in of President Tharman Shanmugaratnam on 14 September 2023 at the Istana.” (검색일: 2023.12.29.)
- \_\_\_\_\_. 2023c. “DPM Lawrence Wong at the Grand Opening Ceremony of the 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re.” 21 November. (검색일: 2024.1.9.)
- Quek, Hykel. 2023a. “‘I Don’t See Myself Running This Business in 5 Years’ Time’: A Minimart’s Struggle With GST Hikes.” *RICE*. 14 February. (검색일: 2023.12.29.)
- \_\_\_\_\_. 2023b. “The Ridout Road Saga Isn’t About Corruption. It’s About the Optics of Privilege.” *RICE*. 30 June. (검색일:

2023.12.11.)

- Ruehl, Mercedes. 2023. "What Taylor Swift tells us about Singapore vs Hong Kong." *Financial Times*. 20 July. (검색일: 2024. 2.18.)
- Sarmiento, Prime. 2023. "Singapore seen as hub for renewable energy." *ChinaDaily*. 2 November. (검색일: 2024.1.8.)
- Sato, Fumika. 2023. "Singaporeans face higher bills and fares as inflation bites." *Nikkei*. 10 October. (검색일: 2023.12.27.)
- Singh, Bhawna. 2023. "Young Singaporeans more likely to say they are ready for an ethnic minority Prime Minister." *YouGov*. 13 September. (검색일: 2023.12.19.)
- Strangio, Sebastian. 2023. "Singapore to Establish Defense Communications Hotline With China." *The Diplomat*. 2 June. (검색일: 2024.1.4.)
- Tan, Ashley. 2023a. "Lawrence Wong name-drops Charles & Keith saga as example of unhealthy comparisons on social status." *mothership*. 16 January. (검색일: 2023.12.29.)
- Tan, Dawn Wei. 2023b. "'You have to keep on making it better and better': PM Lee on Singapore-China relationship." *The Straits Times*. 2 April. (검색일: 2024.1.3.)
- \_\_\_\_\_. 2023c. "China wants to work with Singapore as it executes 'ambitious blueprint', says Li Qiang in meeting with PM Lee." *The Straits Times*. 2 April. (검색일: 2024.1.3.)
- Tan, Elysia. 2023d. "Singapore tourist arrivals dip for 3rd straight month to 1.13 million in October." 21 November. (검색일: 2023. 12.27.)
- Tan, Felix. 2023e. "Commentary: String of controversies a setback

- for Workers' Party's progress in Singapore." *CNA*. 22 July. (검색일: 2023.12.18.)
- Tang, Louisa and Tang See Kit. 2023. "Singapore's next General Election likely to be held in late 2024 at the earliest, analysts say." *CNA*. 5 November. (검색일: 2024.1.10.)
- Tham, Yuen-C. 2023. "Four opposition parties to form new alliance ahead of the next GE." *The Straits Times*. 1 June. (검색일: 2023.12.19.)
- The Economic Times. 2023. "Singapore ready for non-Chinese PM, says presidential candidate Tharman." 26 August. (검색일: 2023.12.19.)
- The Online Citizen. 2023. "Red Dot United calls for transparency and wealth equality amidst Ridout Rental Saga." 8 July. (검색일: 2024.1.2.)
- The Straits Times. 2023. "Malaysia says move to withdraw application to review Pedra Branca ruling was 'improper'." 27 January. (검색일: 2024.1.5.)
- Tjoe, Lee Nian. 2023. "Car COE premiums hit new highs, Open category rises to \$144,640." 20 September. (검색일: 2023. 12.27.)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3. "DOD, Singapore Ministry of Defence Enter Into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8 December. (검색일: 2024.2.13.)
- U.S. Department of State. 2023. "Joint Statement on U.S.-Singapore Space Dialogue." 12 October.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n-u-s-singapore-space-dialogue/> (검색일: 2024.1. 5.)



- Vochelet, Robin. 2023. "Tan Kin Lian's Conservative Views Divide Singapore's Anti-PAP Forces." *The Diplomat*. 30 August. (검색일: 2023.12.18.)
- Wong, Shiyong. 2023a. "Singapore and China to conduct two-week bilateral army exercise." *The Straits Times*. 28 August. (검색일: 2024.1.4.)
- Wong, Tessa. 2023b. "Tharman Shanmugaratnam: Singapore picks a president who could've been much more." *BBC*. 1 September. (검색일: 2023.12.15.)
- Woon, Walter. 2023. "Singapore's Role as a Neutral Interpreter of China to the West." *The Diplomat*. 5 December. (검색일: 2024.1.3.)
- Yaacob, Ratman. 2023. "Lawrence Wong's ascent as Singapore's 4th generation leader." *The Interpreter*. 9 November. (검색일: 2024.1.4.)
- Yong, Michael. 2022. "Rental prices of HDB flats surge most in the heartlands; Punggol, Woodlands among the highest." *CNA*. 21 November. (검색일: 2024.1.2.)
- Zalizan, Taufiq. 2023. "Analysis: New areas of Singapore-Indonesia cooperation will help cement ties beyond Jokowi's term." today. 16 March. (검색일: 2024.1.9.)
- Zunaira, Saieed. 2023. "Anwar's visit to S'pore will set stage for 'significant progress' in longstanding bilateral issues: Vivian." *The Straits Times*. 18 January. (검색일: 2024.1.5.)

(2024.1.10. 투고, 2024.1.26. 심사, 2024.2.8. 게재확정)

<Abstract>

## Singapore 2023: Inequality Deepens Amid Corruption Allegations and Slow Economic Growth

Jooyoung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3, Singapore faced the challenge of stabilizing people's lives and proving the capabilities of fourth-generation leadership as economic growth slowed and the country was in turmoil due to corruption allegations against the ruling party. It was also a year when rising rents, taxes and utility bills, along with prices that have stabilized but still remain high compared to 2022, increased the burden of living costs. It was also a time when inequality was raised as the ruling party's corruption allegations, represented by the real estate scandal, coincided with the hardships of life for the people.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under these circumstances ended with unexpected but surprising results, and the political party was busy preparing for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began his general election journey by announcing that he would hand over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to Deputy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in November 2024. The ruling party focused on dealing with the corruption allegations and presenting Singapore's future, while the opposition party sought ways to gain

meaningful power through solidarity. Externally, while maintaining the stance of balanced diplomacy between US and China, it upgraded it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sought new areas of cooperation with the US. Cooperative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digital cooperation with Europe and the Middle East continued, and cooperation in the green economy and digital economy field with Korean companies was carried out.

**Key Words:** Singapore, Corruption, Presidential Election, People's Action Party(PAP), Tax Increase, Inequality, Succession of Prime Minister, General Election.

